

동부권 해상 저염분 주의보

누적 강우량 230.7mm·농도 17.3~22퍼밀

섬진강물 여수해역 유입 양식장 폐사 가능성

제16호 태풍 ‘산바’ 영향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동부권 해상에 저염분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는 “태풍기간 누적 강우량이 230.7mm에 달해 19일 현재 여수 돌산도와 남면 등 전남 동부권 해역의 표층수 염

분 농도가 17.3~22.1퍼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섬진강물이 지속적으로 여수해역에 유입되면서 저염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육상 양식장은 주의보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상태에서 육상양식장에서 해수를 사용하면 폐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수지소는 염분농도가 25퍼밀 이상일 경우에 취수하고, 취수장소도 되도록이면 저염분의 영향을 적게 받는 10m 이상의 깊은 곳에서 만조 때 할 것을 권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 관계자는 “바다 예찰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풀장에서 전어잡기 최근 보성군 화천면 울포 해수풀장에서 열린 ‘제8회 보성 전어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어잡기를 하고 있다. 올해는 전어 어획량이 늘어 1t 가량을 해수풀장에 풀어놓고 마음껏 전어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가을’로의 초대

21~23일 곡성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곡성군 석곡면은 오는 21~23일 사흘간 석곡면 대황강변에서 ‘제12회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석곡 코스모스축제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태풍 ‘산바’의 상륙에 따라 주암댐 방류량을 늘리며 대황강변에 조성된 1만평 규모의 코

스모스 축제장이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음악회는 다슬기잡기 체험과 대황강변을 가로지르는 무료 수상자전거·보트타기 체험, 돌살나이산배 짜기 체험, ‘지푸라기 소 할배’ 신남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짚돌공예 체험, 석곡 출신 경관 명인 김



정규 선생의 경관 탁본 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축제 기간중 펼쳐지는 31사단 군악대 공연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콘서트, 코스모스 가요제 등도

함께 열린다. 이날 음악회 현장에서는 석곡 흑돼지, 월하시 꽃감, 낙농유제품 등 친환경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일자리 창출 으뜸 中企 6곳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전남동부지부는 올해 으뜸기업으로 (주)삼우에코 등 6개사를 선정 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지난 18일 (주)삼우에코, (주)광양해더, (주)매일식품, 엠티에스(주), (주)지본코스

메틱, (주)티엠에스중공업 등에 ‘일자리 창출 으뜸’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인력 관련 예로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중진공은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으뜸’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8월부터 스마일스토리

(www.smilestory.or.kr)를 오픈해 온라인을 통한 으뜸기업 홍보를 진행 중이다.

최병채 전남 동부지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상습 주취자 사회 복귀를”

보성아산병원-경찰 협약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8일 보성아산병원(원장 김중렬)·별교삼성병원(원장 박근홍)과 주폭(酒暴)적결과 상습주취자 상담·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경찰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활동으로 응급실 주취소란자 등 주폭(酒暴)을 적절하고, 보성 아산병원·별교 삼성병원 은 협력병원으로서 상습주취자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 및 치료활동과 치료비 감면 등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재호 서장은 “관내 주요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주취 폭력의 엄정한 단속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전 북

장애 학생가족 대만 현장체험

전북도교육청

“우리 아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내손을 꼭 붙잡고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신기한 듯 살펴봅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이런 단체여행이 신기한 듯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어림잡자 느껴 보는 것 같았습니다.”(남원 노암초등학교 학부모)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펴낸 장애학생들의 해외현장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의 설문과 기

쁨이 가득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장애학생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대만 현장체험 학습 나들이를 다녀왔다.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 해외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용기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께 2차 체험단이 출발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지역발전협의회 출범

정읍만의 특색있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읍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민간중심의 지역 자율협의체이다. 협의회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겸비한 시의원과 국책연구기관 대표, 기업체 대표, 변호사, 지역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위원장에 이한욱 위원, 부위원장에 김경호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요사항 협의 및 조정과 관련한 사항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연 2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정책 특강을 펼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평생교육원 주말 인문학 특강

전주시 평생교육원(원장 성하준)은 22일(오전 10~12시)에는 덕진도서관 인후분관에서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주말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특강은 감지이 독립영화 감독을 초청해 ‘도서관에서 영화를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 감독은 영화 ‘그랜 토리노’, ‘그

을린 사랑’, ‘500일의 썸머’, ‘그들 각자의 영화관’ 등을 감상하면서 영화를 읽는 5가지 키워드(지문·대사·구성·시공간·나)에 대해 강연한다.

임광진 덕진 도서관장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 주말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인생 2막 귀농천국 순창에서

郡, 빈집 알선·창업지원 등 귀촌유치 TF팀 구성

순창군이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귀농·귀촌 유치에 앞장서고 나섰다.

군은 최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지 부머’세대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앞서 군은 전북 도내 최초로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 2001년 13명을 시작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년 215명, 2011년 209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314명(142세

대)이 귀농·귀촌 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150%가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현재까지 순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200여명. 군은 앞으로 100여명을 더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농정과 내에 ‘귀농·귀촌 TF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귀농·귀촌 TF팀은 귀농자 상담을 비롯해 빈집 알선, 귀농자 창업 지원과 함께 귀농·귀촌 홍보와 유치활동 등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비로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사비, 소득사업비, 빈집수리비 등 16개 사업 208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풍산면 옛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소, 전곡 귀농운동본부와 협조를 통해 귀농 전문상담과 귀농 전문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 귀농인들이 순창에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모 나와라 압~

‘2012 세계 한민족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이 지난 18일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땀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신

군산 차량등록소 내달 8일 업무 개시

군산시 차량등록 사업소가 영화동(옛 여성회관)으로 이전 10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09년 7월 교통행정과에서 분리해 문을 연 이래 시청 1층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나 차량 및 민원증가로 이용자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다. 이전청은 영화동 옛 여성회관 건물(연면적 1084㎡)을 리모델링했으며 민원실·번호판 교부소·농협 출장소 등이 함께 들어섰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건수는 37만8000여 건에 이른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남원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남원시는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원할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 여성문화관 작은 도서관 개소

정읍 여성문화관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시는 중앙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7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들여 여성문화관 2층에 작은 도서관(160㎡ 규모)을 건립했다.

작은 도서관은 3000여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일요일은 정기휴관한다.

여성문화관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문화교육(40개 과목)을 실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청소년 대상 ‘신비한 우주체험’

고창 청소년수련관은 최근 관내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고흥 나로 우주과학관과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신비한 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나로 우주과학관에서 4D 동영상관에서 영상을 시청

하고,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는 우주선 조종과 달 중력체험 등을 했다. 청소년들은 나로호 모형 앞에서 사진도 찍고 발사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시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